

김경수 도지사, “경남이 경제와 민생 살리는 마중물 역할할 것”

- 12일(수) 도청 도정회의실, 더불어민주당과 경남 현안사업과 국고예산 확보 방안 논의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 등 중앙당 관계자 참석
- 경상남도, 제조업 혁신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국가차원 추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금융체계 개선 건의

경상남도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선 7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설훈, 김해영, 남인순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홍익표 수석대변인, 김성환 비서실장, 조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비롯한 중앙당 관계자들과 민홍철 경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김정호 의원 등 도당관계자, 도의회 김지수 의장 등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에서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제조업 혁신 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스마트공장 보급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독일·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 사례처럼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해 줄 것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금융체계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주요 현안사업과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도 요청했다.

경상남도는 주요 현안으로 ▲서부경남KTX의 국가재정 사업 조기 착공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국비 지원한도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정책금융 체계 개선 ▲R&D 체계 혁신을 위한 한국재료연구원 설립 법률안 국회 통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생활SOC 우선배정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관련 공공기관의

경남 이전 등을 건의했다.

또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반영해야 할 주요 사업들을 건의했다.

경상남도가 건의한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경제혁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 3D프린팅 설계혁신 실증라인 구축 사업, 위기지역 중소기업 R&D 패키지 지원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 ▲도로망과 항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한림~생림(국지도 60호선) 건설 사업 ▲깨끗한 생활·자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 바람길 조성,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등 총 30건을 건의했다.

한편 회의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과 중앙당 관계자들은 경남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제조업 혁신과 서부경남 KTX,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과 같은 현안사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경남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메카로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할 때 정부 R&D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에 대해서도 중앙당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실현가능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남지역에 맞는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수 도지사는 “1983년도 부산에서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후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도청에서 회의를 하는 게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제는 다시 뛰는 경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며 소감을 밝힌 뒤 “경남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경남도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도정을 펼쳐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경남의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손영근 주무관(055-211-23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